

- 해외지역정보 -

루마니아, 최근 민영화 적극 추진

국별 조사실

□ 루마니아, IMF의 권고에 따라 민영화 활발하게 추진중

- 루마니아 정부는 IMF의 대기성 차관조건으로 내세운 주요 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중임. 특히 동 정부는 과거 2차례 민영화에 실패했던 Banca Comerciala Romana(BCR)은행 민영화 1단계를 완결했고, 세계 각국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Petrom의 민영화도 추진중임.

□ BCR, 민영화 1단계 완결

- BCR 민영화의 1단계가 EBRD와 IFC가 지분 25%를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9월 26일에 완결되었음. 계약액은 2억 2,200만 유로에 2003년 동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액임.
- 이에 따라 EBRD와 IFC는 각각 지분 12.5%를 갖게 되고, 이에 따른 투표권도 보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루마니아 민영화 기관인 APAPS는 지분이 44.8%로 감소하게 됨.
- 작년에 동 은행을 민영화하려는 2번의 기도가 모두 실패한 이후 동 은행을 민영화하라는 IMF의 요구에 따라 동국 정부는 민영화 계획을 수정하였음. 동국 정부는 금년 6월에 새로운 계획을 승인하였는 바, 새로운 계획은 지분 8%를 동 은행 직원, 임원, 퇴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BCR 근로자협회(Association of Employees)에 직접 협상을 통해 매각하고, 잔여 지분은 주요 국제금융기구나 이들 기구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의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었음.

□ Petrom, 민영화 추진중

- 미국, 동서 유럽, 러시아 등의 대형 석유회사가 Petrom 민영화에 관심을 표명하여 15개 기업 및 컨소시엄이 금년 9월 19일자 마감일까지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동국 정부는 금년 10월에 11개 기업 및 컨소시엄의 입찰 적합자 명부를 발표하였음.
- * 러시아 TNK와 영국 BP의 연합, 폴란드의 PKN Orlena, 헝가리의 MOL, 오스트리아의 OMV, 러시아의 Gazprom, 스위스의 Glencore, 미국의 Occidental Oil and Gas Holding Corporation, 미국의 Alon, 영국의 Conoco Phillips, 이태리의 ENI, 그리스의 Hellenic Petroleum 등이 입찰 자격을 획득하였음.
- * 미국의 Halliburton/영국Regal Petroleum PLC/루마니아의 Tender의 컨소시엄, 영국의 Glencore, 미국의 Alon, 키프러스의 Phonix Oil 이 입찰 부적격자로 통보받았음.
- 정부는 Petrom의 1차 입찰을 11월에, 마지막 입찰을 내년 1월말에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년 3월에 민영화를 완결할 예정임.
- 정부는 Petrom의 민영화 계획을 금년 8월말에 발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지분 33.34%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직접 매각을 통해서 매각하고, 추후 증자를 통하여 전략적 투자자가 51%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할 예정임.
 - * 현재 정부는 지분 93%를 보유하고 있고, 7%는 부쿠레슈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음
 - * 전략적 투자자란 최근 3년간 석유 및 가스 사업에서 연 10억 달러 이상 수입을 실현한 단일 기업이나, 연 13억 달러의 수입을 실현하고 석유 및 가스 산업분야의 경영 및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최대 4개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규정함

* Petrom 현황

- 종업원 : 6만명,
- 자산 현황 : 800만톤 용량의 정유공장 2개, 1억 2,800만톤의 원유저장소, 1,012억 5,500만 입방미터의 가스 저장소, 695개 석유 판매점 보유 (루마니아 석유 유통시장의 50~55% 점유)
- 영업현황(2002년) : 매출액 22억 달러, 순익 1억 100만 달러

책임연구원 권유철(☎3779-6652)
E-mail : uckwon@koreaexim.go.kr